

남북조 시대의 천문 기록

정사(正史) 천문 관련 '지(志)'의 일·월·식 기록을 중심으로*

이문규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 과학문화연구센터)†

1. 머리말

중국의 전통 과학에서 ‘천문’(天文)이라는 분야가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은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일찍이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살피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결코 군주(君主)가 소홀히 하지 않은 일이라 하면서¹⁾ 천문의 체계를 세운 이래, 천문은 역법(曆法)과 더불어 대부분의 중국 정사(正史)에서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길 만큼 모든 왕조에서 매우 중시했던 분야였다.

중국과학사 연구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찍부터 천문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천문의 전체적인 모습과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천문이란 분야는 점성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서양의 점성술이 ‘호로스코프 점성술’(horoscopic astrology)의 성격을 띠는 데 비해 중국에서는 ‘천변(天變) 점성술’(portent astrology)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알려졌다.²⁾ 또한 중국 점성술의 특징적인 모습 즉, 점성술의 대상이 되는 천체에 부여된 상징체계, 점성술에 이용되는 주요한 천문 현상, 분야설과 같은 점성술의 방법, 점성의 주요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밝혀지기도

* 투고 2012년 11월 7일. 심사 및 게재확정 2012년 11월 13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지원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초고는 제8회 “동아시아의 과학과 종교” 정기세미나(서울대학교, 2011년 6월 23일)에서 발표했으며, 당시 유익한 토론을 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1) 『사기』 「천관서」, 349쪽, “太史公曰, 自初生民以來 世主曷嘗不曆日月星辰.”

2) 中山茂, “중국 점성술의 특징”, 김영식 편,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창작사, 1986), 217-223쪽.

했다.³⁾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천문이란 분야를 지나치게 점성술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천문이란 분야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모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아쉬움은 천문의 내용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정사의 천문지(天文志)와 같이 각각의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편찬되는 자료에 깊이 천착하지 않고, 시대와 상관없이 점성술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자료만을 모아서 천문이란 분야의 전반적인 특징을 재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남북조 시대라는 한 시기를 대상으로 삼고, 가장 대표적인 천문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식과 월식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살펴서 그 시대에 천문이란 분야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남북조 시대가 여러 왕조가 자주 교체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각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史書)도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서마다 천문 현상을 어떻게 분류하고 기록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천문 현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끊이지 않고 제대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천문 기록의 연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다음으로 3절은 일식과 월식으로 나누어 이들 천문 현상이 각각의 왕조마다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남북조 시대의 천문 관련 ‘지(志)’

남북조 시대란 통일 왕조였던 한(漢)의 멸망 이후 삼국시대와 서진(西晉)과 동진(東晉) 즉, 위진 시대를 거쳐, 유유(劉裕)가 송(宋, 420-479)을 건국한 때부터 수(隋) 문제(文帝)가 진(陳, 557-589)을 평정하여 중국을 재통일(589)한 시기까지를 말한다. 이때 중국의 남방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송, 제(齊, 479-502), 양(梁, 502-557), 진 등 4개의 왕조를 이른바 남조라 한다. 북

3) 중국 점성술에 대해서는 橋本敬造, 『中國古星術の世界』(東方書店, 1993); 江曉原, 『星占學與傳統文化』(上海古籍出版社, 1992) 등을 참고할 만하다.

조에 속하는 왕조로는 북위(北魏, 386-534), 서위(西魏, 535-556), 동위(東魏, 534-550), 북제(北齊, 550-577), 북주(北周, 557-581) 등이 있는데, 북조의 시 작은 일반적으로 북위의 건국이 아닌 북위의 태무제(太武帝)가 북량(北凉)을 멸망(439)시켜 이른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를 마감하고 북방을 평정한 때를 기점으로 삼는다.

이처럼 남북조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각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史書)가 있어 ‘이십사사(二十四史)’ 중 9개를 차지한다. 즉, 남조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로는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남사(南史)』 등이 있고, 북조의 경우에는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북사(北史)』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송서』, 『남제서』, 『위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서들은 사서의 관찬(官撰) 전통이 확립되어 가던 당(唐) 초에 편찬되었는데,⁴⁾ 그것들에는 문물과 제도를 다루는 ‘지(志)’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진 문물과 제도의 역사는 『수서(隋書)』의 ‘십지(十志)’가 보완하고 있으며, 양, 진, 북제, 북주의 천문 기록 역시 『수서』 「천문지」에 들어 있다. 결국 남북조 시대의 천문 기록은 일차적으로 『송서』, 『남제서』, 『위서』, 『수서』 등의 천문 관련 ‘지’에 들어 있는 셈이다.⁵⁾ 그런데 남북으로 나뉘어져 여러 왕조가 교체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남북조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이들 문헌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조 시대의 천문 현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 천문 관련 ‘지’의 체계와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심약(沈約, 441-513)이 찬술한 『송서』이다. 『송서』는 당연히 송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송서』는 실제로 유유가 동진의 실권을 장악한 때부터 송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송서』의 천문 관련 기록인 「천문지」와 「오행지」는 한이 멸망한 직후인 삼국시대 위(魏) 문제

4) 唐 초에는 史館을 설치하고 역사 편찬을 官에서 주도하는 제도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조 시대부터 隋까지 前代の 역사가 정리되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中國史學發展史’編寫組 編著, 『中國史學發展史』(中州古籍出版社, 1985), 138-157쪽을 참고.

5)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本紀나 列傳 등에도 천문 관련 ‘志’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긴 하지만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이 이따금 들어 있다. 남북조 시대의 사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록들은 北京天文臺 主編, 『中國古代天象記錄總集』(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文帝) 때부터 시작한다. 이는 한 이후 천문 기록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상황에서⁶⁾ 천문 기록의 연속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천문 기록의 연속성을 『송서』 「천문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무릇 하늘에 늘어서 있는 별[의 전체적인 모습]과 하늘의 가운데와 바깥에서 항상 일정한 곳에 머무는 별자리들은 이미 앞선 사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제 위 문제 황초 이래의 성변을 기록함으로써 천문지로 삼으니, 이로써 사마표[의 천문지]를 잇는다.⁷⁾

여기서 ‘앞선 사서’란 천문 해석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사기』와 『한서』 그리고 『한서』를 계승하여 후한 시대의 천문 현상을 충실히 기록한 『후한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송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로 『삼국지』와 『진서』가 있지만, 『삼국지』에는 ‘지(志)’ 자체가 아예 없고 『진서』는 『송서』보다 훨씬 뒤인 당(唐) 때 편찬되었기 때문이다.⁸⁾ 송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송서』의 ‘본기(本紀)’와 ‘열전(列傳)’ 등은 비록 송 시기만을 다루고 있지만, 천문 현상을 기록하는 일은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천문 기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던 마지막 사서인 『후한서』를 곧바로 잇고자 한 것이다.⁹⁾

『송서』가 『후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은 천문 현상을 천문지와 오행지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서』에서는 처음으로 오행지를 두어 당시 재이(災異)로 받아들여졌던 여러 현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¹⁰⁾ 천문 현상 중에서는

6) 『송서』 「志序」, 204쪽, “天文五行 自馬彪以後 無復記錄.”

7) 『송서』 「천문지」, 680쪽, “凡天文經星 常宿中外宮 前史已詳. 今惟記魏文帝黃初以來星變爲天文志 以續司馬彪.”

8) 『송서』보다 앞선 시기에 나온 『三國史』, 『晉史』 등에도 ‘書’ 혹은 ‘志’가 있었다고 하나 산일(散佚)되었다 한다. 宋衍申 主編, 『中國史學史綱要』(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2), 83쪽.

9) 이처럼 천문 현상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사마천 이래의 전통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56-58쪽을 참고할 것. 한편, 『송서』에는 8개의 ‘지’가 있는데, 대부분 삼국 및 위진 시대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전통은 비단 천문 현상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10) 『한서』 「오행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吉川忠夫, “漢書五行志解說”, 吉川忠夫·富谷至 譯注, 『漢書五行志』(平凡社, 1986), 3-23쪽을 참고할 것.

일식, 일월변, 성운, 혜성, 운석 등이 오행지에서 다루어졌다. 『한서』의 체계를 따른 『후한서』 역시 천문 현상을 천문지와 오행지로 나누어서 기록했는데, 오행지에서는 혜성, 성운, 운석 등의 현상을 제외하고 일식 등 주로 해에 관한 현상만을 다루었다.¹¹⁾ 『송서』 「오행지」 역시 천문 현상 가운데 일식과 백홍관일(白虹貫日), 해의 흑점 등 대부분 해에 관한 현상만을 기록하였다.¹²⁾ 위진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진서(晉書)』 역시 일식 등을 천문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일식 등의 천문 현상을 별도로 오행지에 기록한 것은 정사 가운데 『송서』가 마지막에 해당한다. 또한 『송서』는 일식 등 해에 관한 현상을 제외한 나머지 천문 현상을 천문지에 연대순으로 기록했는데, 이 역시 『후한서』 「천문지」와 거의 같은 방식이다.¹³⁾

『송서』 「천문지」가 『후한서』 「천문지」를 계승하면서 천문 현상도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송서』 「천문지」는 『사기』 「천관서」, 『한서』와 『후한서』의 「천문지」 등 이전의 천문서와는 다른 특별한 내용도 들어 있다. 예컨대 『송서』 「천문지」의 앞부분에는 『진서』 「천문지」의 천체(天體)와 의상(儀象) 항목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천체에 관한 논의가 꽤 긴 분량으로 들어 있다. 채옹(蔡邕)의 ‘삭방상서(朔方上書)’로 시작하는 『송서』 「천문지」의 천체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한 이후에 이루어진 천체에 관한 여러 다양한 논의를 싣고 있으며, 이것이 이후 유명한 『진서』 「천문지」의 천체에 관한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한편, 심약은 『송서』를 찬술하면서 서원(徐爰) 등이 편찬한 또 다른 문헌인 『송서』를 크게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원의 천문 기록은 앞서 언급한 유유가 동진의 실권을 장악한 동진 안제(安帝) 의희(義熙,

11)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98쪽.

12) 『송서』 「오행지」에는 예외적으로 월식에 관한 기록이 한 번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송서』 「오행지」, 3965쪽에는 “朔旦 月猶見東方”이라는 달에 관한 기록도 하나 있는데, 초하룻날 해 뜨기 전에 달이 동쪽에서 나왔다는 기록인지, 해가 뜬 후에 달이 동쪽에서 나왔다는 기록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3) 『후한서』 「천문지」의 천문 기록은 전체적으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으나, 운석에 관한 2건의 사례가 맨 끝에 따로 기록되어 있다.

14)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한편, 『진서』 「천문지」는 흔히 중국 전통 천문학의 모범적인 체계를 제시한 문헌이라고 하지만, 천체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문 기록 역시 『송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체계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405-418) 연간부터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후한서』를 잇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심약은 원가력(元嘉曆)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 하승천(何承天, 370-447)의 기록, 즉 위 문제 황초 연간부터 기록한 것을 준용(遵用)하여 『송서』의 천문 관련 부분을 완성할 수 있었다.¹⁵⁾

다음은 소자현(蕭子顯, 약 489-537)이 찬술한 『남제서』이다. 『남제서』는 본래 『제서』라고 했으나, 당나라 때 이백약(李百藥)이 북제의 역사를 기록한 『북제서』를 편찬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남제서』라 칭했다고 한다. 『송서』와 마찬가지로 『남제서』에도 「천문지」와 「오행지」가 모두 있다. 하지만 『남제서』 「오행지」는 천문 현상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내용도 『송서』 「오행지」에 비해 소략하다. 『송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제서』 「천문지」가 『송서』의 「천문지」 및 「오행지」를 잇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¹⁶⁾ 『송서』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천문 현상을 기록하는 새로운 체계, 곧 일식을 포함하여 모든 천문 현상을 「천문지」에 모아 놓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에서 천문 현상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한서』 이후 『송서』까지 천문 현상은 천문지와 오행지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다.¹⁷⁾ 하지만 동일한 하늘에서 나타나는 천문 현상을 굳이 둘로 나누어 기록하는 이런 방식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¹⁸⁾ 『남제서』는 모든 천문 현상을 천문지에 기록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후 정사는 모두 『남제서』의 체계를 따르게 되었다.

『남제서』 「천문지」는 천문 현상의 배열에서도 앞선 천문서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천문지와 오행지의 구분을 제외하면, 『남제서』 이전의 천문 기록은 모두 연대순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제서』 「천문지」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천문 현상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15) 『송서』 「志序」, 204-205쪽, “何書自黃初之始 徐志肇義熙之元. 今以魏接漢 式遵何氏.”

16) 『남제서』 「천문지」, 204-205쪽, “今所記三辰七曜之變 起建元訖隆昌 以續宋史.”

17) 『한서』보다 앞선 『사기』 「천관서」는 천문 해석의 원리를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고 상대적으로 천문 현상의 기록은 다소 소략하게 다뤘다.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67쪽.

18) 『위서』 「천상지」, 2333쪽, “班史以日暈五星之屬列天文志 薄蝕彗孛之比入五行說. 七曜一也 而分為二志 故陸機云學者所疑也.”

일식(日蝕)

월식(月蝕)

일광색(日光色, 햇빛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

월휘범(月暈犯, 달무리와 달이 다른 천체를 범하는 현상)

오성상범열수잡재(五星相犯列宿雜災, 오행성과 여러 별자리가 서로 범하는 등의 재이 현상)

유성재(流星災, 유성이나 혜성 등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별에 관한 재이 현상)

노인성(老人星)

백홍운기(白虹雲氣, 무지개나 기상 현상에 의한 재이 현상)

이와 같은 『남제서』 「천문지」의 천문 현상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이후 『진서』 「천문지」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진서』 「천문지」는 일종의 천문 사례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사험(史傳事驗)’ 부분에서 천문 현상을 일식, 월변(月變), 월엄범오위(月奄犯五緯), 오성취사(五星聚舍), 월오성범열사(月五星犯列舍), 요성객성(妖星客星), 성유운(星流隕), 운기(雲氣) 등으로 나누어 기록했던 것이다.

『남제서』 「천문지」의 천문 현상 분류에서 노인성(老人星)을 단일 항목으로 설정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노인성은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적위: $-51^{\circ} 40'$) 북반구에서는 쉽게 관찰하기 어렵다. 하지만 천문 관측이 활발했던 고대 중국에서 노인성은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¹⁹⁾ 또한 노인성은 쉽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장수를 상징하고 나라가 평안함을 의미하는 별이었다.²⁰⁾ 그러다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도교가 널리 퍼지면서 노인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풍조가 성행하게 되면서,²¹⁾ 『남제서』에서도 노인성을 중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제서』 「천문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천문 현상을 기록하는 중간에 찬자(撰者)의 견해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내가 말하기를(史臣曰)”로 시작하는 이런 견해는 월식 기록 직후, 달무리와 달이 다른

19) 『사기』 「천관서」, 136-1307쪽, “狼比地有大星 曰南極老人 老人見 治安 不見 兵起. 常以秋分時候于南郊.”

20) 『개원점경』 (李克和 校點, 長沙: 岳麓書社, 1994), 723쪽, “黃帝占曰, 老人星 一名壽星 色黃明大而見 則主壽昌 老者康 天下安寧 其星微小若不見 主不康 老者不强 有兵起.”

21) 당시에는 老人星이 크게 주목을 끌어 그에 관한 여러 편의 문장에 등장했을 정도라 한다. 大崎正次, 『中國の星座の歴史』 (雄山閣, 1987), 191-192쪽.

천체를 가리는 현상(月暈犯)의 기록 중간, 오행성이 항성을 가려서 생기는 재이(五星相犯列宿雜災) 기록 직전, 유성에 의한 재이(流星災) 직후 등 모두 네 차례 들어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위서』는 북제 때 위수(魏收, 505-572)가 편찬한 것으로 북위(본래 국호는 ‘魏’였으나, 전국 및 삼국시대의 위와 구분하기 위해 북위라 불림), 서위, 동위의 역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북위나 이른바 ‘육진(六鎮)의 난’으로 인해 북위에서 갈라져 단명한 서위와 동위 모두 선비족(鮮卑族)인 탁발씨(拓跋氏)의 왕조였기 때문일 것이다. 위수는 천문 관련 기록을 모아서 천문지가 아니라 독특하게 ‘천상지(天象志)’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서』 「천상지」는 편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3과 권4가 망실되었으나, 이후 당(唐) 때 장태소(張太素) 등이 편찬한 또 다른 종류의 『위서』 등을 이용하여 없어진 부분을 보충해서 4권 모두를 갖출 수 있었다고 한다.²²⁾ 이 과정에서 새로 보충한 권3-4에는 권2와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²³⁾

위수는 비록 「천상지」에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천문 현상을 크게 천변과 일변(권1), 월변(권2), 성변(권3-4)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천상지」의 이런 체계는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오행지와 천문지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분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서』가 『남제서』보다 뒤늦게 편찬되었음에도, 천문 현상의 분류가 『남제서』보다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남제서』를 직접 참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서』 「천상지」는 천문 현상을 주로 재이로 취급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천상지」의 첫머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저 하늘에서 [현]상이 이루어지고 성인(聖人)이 이를 살핀다. 일월과 오성은 이를 드러내는 데 두드러진 것으로 일정함에서 벗어나고 [정해진 궤]도를 어그러뜨려 허물을 징계함을 수반한다. 따라서 [일월오성의] 밝음과 어둠, 무리(暈)와 식(蝕), [운행의] 빠르고 늦음, 다른 천체를 가리거나 한곳에 머무는 것과 혜성이나 패성이 세차게 흘러가거나 갑자기 생겨 항상성이 없는 것 또는

22) 『위서』 「천상지」 권3, 2418-2419쪽, 校勘記 [-].

23) 陳美東, “魏書天象志, 律曆志提要”, 薄樹人 主編,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天文卷三』 (河南教育出版社, 1996), 376쪽.

국황성(國皇星)이나 영성(靈星)이 등장하는 것 등은 [모두 하늘의] 견책을 보임으로써 아래[의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함이다. 혹은 군주의 덕화(德化)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감응하여 하늘의 운행(天路)에 미치는 것이다. (중략)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변을 모두 천상[지]에 넣으니, 그것의 응험과 징계가 부합하면 좇아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증험이 명확하게 드러남이 없으면 이를 빠뜨려 [기록에 넣지 않을] 것이다.²⁴⁾

이처럼 천문 현상을 오로지 재이설의 관점에서 기록한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앞서 살펴본 『송서』 「천문지」의 말처럼, 『사기』 「천관서」 이래 천문서들은 하늘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송서』 역시 이런 전제 위에서 천문 현상을 기록하였으며, 『남제서』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⁵⁾ 하지만 『위서』는 모든 천문 현상을 철저하게 재이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기록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문헌은 『수서』 「천문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조의 『양서』와 『진서』 그리고 북조의 『북제서』와 『주서』에는 ‘지’가 없다. 그리고 남북조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 당의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남사』와 『북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양, 진, 북제, 북주 등의 문물과 제도는 『수서』의 ‘십지(十志)’에서 포괄하게 되었다. 이들 왕조의 천문 기록 역시 『수서』 「천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²⁶⁾ 그 부분에는 다섯 왕조의 재변과 응험 즉, ‘오대재변응(五代災變應)’이란 제목이 붙여졌다. 일반적으로 오대는 동진 이후 남조의 송, 제, 양, 진과, 수를 합한 다섯 왕조(당 이후 송 이전의 오대와 구분하기 위해 ‘前五代’라 칭하기도 함)를 말하지만,

24) 『위서』 「천상지」, 2333쪽, “夫在天成象 聖人是觀 日月五星 象之著者 變常舛度 徵咎隨焉. 然則明晦暈蝕 疾餘犯守 飛流欽起 彗孛不恒 或皇靈降臨 示譴以戒下 或王化有虧 感達於天路. … 今以在天諸異咸入天象 其應徵符合 隨而條載 無所顯驗則闕之云.”

25) 『남제서』 「천문지」, 204-205쪽, “今所記三辰七曜之變 起建元訖於隆昌 以續宋史.”

26) 사실 『수서』 「천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만 보아도 그것이 중국천문학사에서 가지는 가치는 『진서』 「천문지」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天體, 渾天儀, 渾天象, 蓋圖, 地中, 晷影, 漏刻, 經星中宮, 二十八舍, 經星在二十八宿外者, 天占, 七曜, 瑞星, 星雜變, 妖星, 雜妖, 客星, 流星, 雲氣, 瑞氣, 妖氣, 十量, 雜氣, 五代災變應.

여기에서 오대란 앞서 말한 양, 진, 북제, 북주와 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수서』 「천문지」의 ‘오대재변응’을 통해 사마천 이래로 계속되는 ‘천문’이라는 분야의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²⁷⁾ 『수서』가 기본적으로 수(581-619)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지만, 『송서』의 경우처럼 천문 현상을 기록하는 일은 결코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의 천문 현상뿐 아니라 앞선 사서에서 다루지 않은 양, 진, 북제, 북주의 천문 현상을 기록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오대재변응’이란 항목을 설정했던 것이다.²⁸⁾ 이처럼 남북조 시대의 천문 현상을 기록한 각각의 천문서는 그 구성과 체계 그리고 서술 방식들이 일정하지 않다. 하지만 천문 현상을 계속 기록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문 기록의 연속성’은 모든 천문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었던 것이다.

3. 천문 현상과 그 기록

1) 일식

하늘에서 나타나는 여러 천문 현상 중에서 일식은 일찍부터 중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춘추』에서 일식을 37 번이나 기록한 것에서도 일식의 중요성은 잘 드러나며, 『한서』와 『후한서』의 「오행지」에서 일식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나 『진서』 「천문지」에서 위진 시대의 일식까지 자세히 기록된 것 역시 일식을 매우 중요한 천문 현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²⁹⁾

남북조 시대의 일식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여러 천문서들에서 중요하게

27) 사마천은 「천관서」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살피는 일이 아주 먼 옛날부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천문’의 전통에 대해 말하였다.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56-58쪽.

28) ‘五代災變應’에는 五代에 속하지 않은 북위 때 발생한 2건의 사례도 들어 있다. 하지만 ‘五代災變應’이란 제목을 의식하기라도 하는 듯, 그 사례에는 ‘帝名’을 밝히지 않았다.

29)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46-158쪽, 183-191쪽과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3-1 (2001), 19-48쪽 등을 참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1부터 표 4는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송서』 「오행지」의 일식 기록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송서』 「오행지」의 일식 기록은 위진 시대의 일식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시 위진 시대의 일식을 기록해 놓은 『진서』 「천문지」와 비교하면,³⁰⁾ 『송서』 「오행지」의 기록이 『진서』 「천문지」의 그것에 비해 15차례 적다. 『송서』 「오행지」에만 기록되어 있는 진(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6년(285)의 일식 기록³¹⁾을 제외하면 위진 시대의 모든 일식 기록이 『진서』 「천문지」에도 기록되었다. 이런 점으로 짐작컨대, 『진서』 「천문지」는 일식 현상을 기록하면서 일차적으로 『송서』 「오행지」를 참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자료를 더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송서』 「오행지」의 일식 기록이 『진서』 「천문지」의 기초 자료가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표 1. 『송서』 「오행지」의 송의 일식 기록

사례	황제	연호 연월	晦朔	서기	添辭	비고*
1	宋 少帝	景平 2-2	朔	424		
2	文帝	元嘉 4-6	朔	427		○
3		6-5	朔	429		
4		6-11	朔		不盡如鉤 蝕時星見 晡方沒 河北地暗.	
5		12-1	朔	435		○
6		17-4	朔	440		○
7		19-7	晦	442		○
8		23-6	朔	446		○
9		30-7	朔	453	既, 星辰畢見.	○
10	孝武帝	孝建 1-7	朔	454	既, 列宿粲然.	
11		大明 5-9	朔	461		○
12	明帝	泰始 4-8	朔	468		
13		4-10				○
14		5-10	朔	469		○
15	後廢帝	元徽 1-12	朔	473		○
16	順帝	昇明 2-9	朔	478		○
17		3-3	朔	479		○

* ○ :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

30) 이에 대해서는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31) 이 일식은 『진서』 「천문지」에는 없지만, 『진서』 「世祖武帝紀」, 76쪽에는 기록되어 있다. 『진서』 「천문지」가 어떤 이유에서 이 기록만을 누락했는지 알 수는 없다.

표 2. 『남제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

사례	황제	연호 연-월	晦朔	서기	添辭	비고*
1	齊 高帝	建元 2-9	朔	480		
2		3-7	朔	481		○
3	武帝	永明 1-12	朔	483		○
4		10-12	朔	492	加時在午之半度 到未初見日始蝕 虧起西北角 蝕十分之四 申時光色複還.	
5	鬱林王	隆昌 1-5	合朔	494	巳時日蝕三分之一 午時光復還.	○

* ○: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

표 3.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

사례	황제	연호 연-월	晦朔	서기	添辭	비고*
1	太祖 (道武帝)	天興 3-6	朔	400	占曰「外國侵 土地分」. 五年五月...	/
2		6-4	朔	403	占曰「兵稍出」. 十月...	
3		天賜 5-7	朔	408	占曰「后死」. 六年七月...	
4	太宗 (明元帝)	神瑞 2-8	晦	415		
5	世祖 (太武帝)	始光 4-6	朔	427	占曰「諸侯非其人」. 神䴥元年二月...	◇
6		神䴥 1-11	朔	428		
7		太延 1-1	朔	435		◇
8		太平眞君 1-4	朔	440		◇
9		3-8	晦	442		◇
10		6-6	朔	445	占曰「有九族夷滅」. 七年正月...	
11		7-6	朔	446	占曰「不臣欲殺」. 八年三月...	◇
12		10-4	朔	449		
13		10-6	朔		占曰「將相誅」. 十一年六月...	
14	高宗 (文成帝)	興光 1-7	朔	454		◇
15		和平 1-9	朔	460		
16		3-2	朔	462	占曰「有白衣之會」. 六年五月...	

17	顯祖 (獻文帝)	皇興 1-10	朔	467		
18		2-4	朔	468	占曰「將誅」. 四年十月...	◇
19		2-10	朔		占曰「尊后有憂」. 三年...	◇
20		3-10	朔	469		◇
21	高祖 (孝文帝)	延興 1-12		471	占曰「有兵」. 二年正月...	
22		3-12	朔	473		◇
23		4-1	朔	474	占曰「有崩主 天下改服 有大臣死」. 五年十二... ; 六年六月辛未...	
24		太和 1-1	朔	477		
25		2-2	晦	478	占曰「有欲反者 近三月 遠三年」. 四年正月...	
26		2-9	朔		占曰「東邦發兵」. 四年十月...	◇
27		3-3	朔	479	占曰「大臣誅」. 四月...	◇
28		5-7	朔	481		☆
29		7-12	朔	483		☆
30		13-2	朔	489	日十五分蝕八. 占曰「有白衣之會」. 十一月...	
31		14-2	朔	490	未時 雲氣班駁 日十五分蝕一. 占曰「有白衣之會」. 九月...	
32		15-1	晦	491	占曰「王者將兵 天下擾動」. 十七年六月...	
33		17-6	朔	493		
34		18-5	朔	494		☆
35	世宗 (宣武帝)	景明 1-1	朔	500		
36		1-7	朔			
37		2-7	朔	501		
38		3-7	朔	502		
39		永平 1-8	朔	508		
40		2-8	朔	509		
41		4-12	朔	511	在牛四度. 占曰「其國叛兵發」. 延昌二年二月...	□
42		延昌 1-5	晦	512	日十五分蝕九. 占曰「大旱 民流千里」. 二年春...	
43		2-5	朔	513	京師不見 恒州以聞.	
44	肅宗 (孝明帝)	熙平 1-3	朔	516		
45		神龜 2-1	朔	519		
46		正光 1-1	晦	520	占曰「有大臣亡」. 七月丙子...	□
47		2-5		521	夏州以聞.	

48		3-5	朔	522	占曰「秦邦不臣」. 五年六月...	
49		3-11	朔		占曰「有小兵 在西北」. 四年二月...	
50		4-11	朔	523		□
51	莊帝 (孝莊帝)	永安 2-10	朔	529	日從地下蝕出 十五分蝕七 虧從西南角起. 占曰「西夷欲殺後有大兵 必西行」. 三年四月...	
52	前廢帝 (節閔帝)	普泰 1-6	朔	531	日蝕從西南角起 雲陰不見 定相二州表聞. 占曰「主弱 小人持政」. 時尙朱世隆兄弟專擅威福.	
53	出帝 (孝武帝)	太昌 1-10	朔	532	日從地下蝕出. 虧從西南角起. 占曰「有兵大行」. 永熙二年正月...	
54		永熙 2-4	朔	533	在丙 虧從正南起. 占曰「君陰謀」. 三年五月...	
55		3-4		534	占曰「有亂殺天子者」. 七月...	
56	孝靜 (孝靜帝)	元象 1-1	朔	538	占曰「大臣死」. 八月...	
57		興和 2-閏	朔	540	占曰「有小兵」. 七月...	
58		武定 5-1	朔	547	從西南角起. 占曰「不有崩喪 必有臣亡 天下改服」. 丙午...	
59		6-7	朔	548	虧從西北角起.	

* ◇: 『송서』 「오행지」의 일식 기록, ☆: 『남제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 □: 『수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

표 4. 『수서』 「천문지」 「五代災變應」의 남북조 시대의 일식 기록

사례	황제	연호 연-월	晦朔	서기	添辭	비고*
1	梁 武帝	天監 10-12	朔	511	在牛四度.	○
2		普通 1-1		520	占曰「日食 陰侵陽 陽不克陰也. 為大水」. 其年七月...	○
3		4-11	朔	523	太白晝見.	○
4	陳 武帝	永定 3-5	朔	559	占曰「日食君傷」 又曰「日食帝德消」.	
5	北齊 肅宗 (孝昭帝)	皇建 2-4		561	子為玄枵 齊之分野.	
6	北周 武帝	保定 1-10		561		
7		2-9		562	旣.	
8		3-3	朔	563		
9		4-2	朔	564		
10		4-8	朔	564		
11		5-7	朔	565		

12		天和 1-1		566		
13		2-1	朔	567		
14		2-11	朔			
15		6-4	朔	571		

* ○: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

송의 일식 기록인 표 1의 ‘첨사(添辭)’란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3차례의 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14차례의 일식 기록은 그저 ‘일식이 발생했다’는 말만 있을 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관된 현상인가 하는 부가적인 설명이나 해석 등이 전혀 없다. 같은 『송서』 「오행지」의 일식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위진 시대의 일식에서는 그러한 첨사가 들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더구나 첨사가 있는 3차례의 송의 일식의 경우에도 그 첨사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일식이나 일식에 따른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 역시 위진 시대의 일식 기록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예컨대, 위진 시대의 일식에서는 그것을 황제의 죽음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송의 일식은 “완전하게 같고리 모양을 이루지는 못했다. 일식이 일어났을 때 별이 보였으며, 저녁 무렵 사라졌다. 하북 지역이 어두웠다.”(사례 4), “개기식이었다. 별이 모두 보였다.”(사례 9), “개기식이었다. 못별이 선명하게 보였다.”(사례 10)와 같이 일식 자체를 묘사하는 내용만이 부기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일식을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 자체만을 묘사하는 모습은 『남제서』 「천문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2를 보면, 남조 제에서 발생한 일식은 모두 5차례이다. 그 가운데 2차례의 일식에만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다. 즉, 사례 4에는 “[일식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시각[을 가리키는 影表]는 오(午)시 반의 도수에 있었다. 미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식이 시작되는 것이 보였는데, [해의] 서북쪽 모퉁이 부분부터 이지러지기 시작했다. [해의] 10분의 4 정도 식이 이루어졌다. 신(申)시에 [햇]빛이 다시 돌아왔다.”, 사례 5에는 “사(巳)시에 해의 3분의 1 정도 식이 이루어졌다. 오시에 빛이 다시 돌아왔다.”는 설명이 있다. 일식이 일어난 시간과 정도 그리고 해의 어떤 부분부터 식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지만,³²⁾ 그것을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은 송이나 제의 그것과도

매우 다른 모습을 띤다. 표 3의 첨사란을 보면, 일단 상당히 많은 경우의 일식에 점사(占辭)와 그것과 직접 연관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함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59차례의 일식 기록 가운데 31차례(52.5%)의 기록이 이와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송과 제의 일식 기록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 물론 일식을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경우는 한이나 위진 시대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일이다. 예컨대 『한서』의 경우 전체 54번의 일식 가운데 9번(16.7%), 『후한서』의 경우 전체 72번 가운데 44번(61.1%), 『진서』의 경우 전체 80번 가운데 25번(31.3%)의 일식을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켜 해석했다.³²⁾ 이런 점에서 일식을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키는 태도가 남조에서는 사라졌으나 북조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일식을 특정한 사건과 관련짓는 모습이 남조에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³⁴⁾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에서도 일식 자체를 묘사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직접 일식을 보지 못하여 전해 들었다(사례 43, 47)는 경우를 제외해도, 10차례의 일식에는 송과 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식의 정도, 해의 어떤 부분부터 식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 등이 묘사되어 있고, 때로는 일식이 일어난 시간을 기록(사례 31, 51, 53, 54)하기도 했다. 또한 사례 41처럼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해의 위치를 드러내어 이른바 분야설(分野說)을 적용한 점사와 사건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일식의 해석에 분야설이 적용된 경우는 남북조 시대를 통틀어 이 사례와 북제 숙종(肅宗) 때의 일식 기록(표 4의 사례 5) 단 2번에 불과하다. 『진서』 「천문지」에서부터 일식에 분야설을 적용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³⁵⁾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에 나오는 점사는 “큰 가뭄이 들 것이

32) 漢 武帝 元光元年七月과 征和四年八月, 成帝 河平元年四月의 일식 기록과 같이, 『한서』에서도 일식 일어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남제서』처럼 자세하지는 않다.

33)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28-29쪽.

34) 이것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조 시대의 자연관 특히 천인감응이나 재이설 등이 남조와 북조에서 각각 어떤 모습으로 전개 또는 변화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아직 그에 관한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35)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29-32쪽.

다”(사례 42)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쟁이나 반란 그리고 황제의 죽음이나 그 측근들의 신상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진서』 「천문지」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진서』 「천문지」에 비해 전쟁이나 반란 등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일식과 연관되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점사에서 예고된 것과 아주 잘 들어맞는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서』 「천상지」가 재이설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과 잘 부합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 중에서 『위서』와 겹치는 시기에 발생한 처음 3개의 일식 기록은 『위서』 「천상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을 비교하면 일식에 병기된 내용이 서로 같지 않다. 예컨대 표 4의 사례 1의 경우, 『수서』 「천문지」와 『위서』 「천상지」 모두 일식이 일어났을 때 해의 위치를 ‘우(牛) 4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서』 「천문지」에는 이를 이용한 점사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례 2의 경우, 일식이 『수서』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위서』에서는 대신(大臣)이 망하는 것으로 예고되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례 3의 경우에는 오직 『수서』에서만 일식이 일어나서 태백(太白)이 낮에도 보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같은 일식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모든 일식을 점사와 사건을 연관시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서로 다른 왕조에서 관찰된 일식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사례 2에 주목하면, 남조 양에서 일어났던 홍수나 북조 북위에서 대신이 주살되는 일이 남북조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조와 북조의 일식 기록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표 1부터 표 4의 비교란의 표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식은 남북조 시대에 발생한 일식에서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동일한 것이 분명한 일식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비교하면 송에서 기록된 17차례의 일식 가운데 4번(23.5%)은 『위서』 「천상지」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역으로 같은 기간 『위서』 「천상지」에 기록된 27차례의 일식 가운데 11번(40.7%)은 『송서』 「오행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남제서』 「천문지」와 『위서』 「천상지」를 비교하면 그 비율을 각각 40%, 70%에 달한다. 또한 『수서』 「천문지」에 기록된 양의 일식은 모두 『위서』 「천상지」에도 기록되었지만, 『

위서』 「천상지」의 양 이후의 일식 22차례 중 19번(86.4)이나 『수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물론 남북조 시대의 각 왕조는 지리적으로 같은 곳에 위치하지 않아서, 일식 관찰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지리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왕조마다 기록한 일식 자체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송에서는 대략 3.53년마다 1번꼴로 일식 기록을 남겼다.³⁶⁾ 제의 일식 빈도는 4.8년으로 일식이 드물게 기록되었음을 나타내며, 『수서』 「천문지」의 기록으로 본 양과 진의 일식 빈도는 18.67년과 33년으로 거의 일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위서』 「천상지」의 일식 기록은 그 빈도수가 2.9년으로 남조에 비해 많은 일식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제의 경우 『수서』 「천문지」에 1번밖에 일식 기록이 없으므로 빈도가 28년이 되지만, 북주의 일식 빈도는 2.5년으로 상당히 많은 일식 기록을 남겼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조가 남조보다 일식을 더 꼼꼼하게 기록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후한서』 「오행지」의 일식 빈도 2.72년이나 『진서』 「천문지」의 일식 빈도 2.51년을 고려하면,³⁷⁾ 북조의 일식 기록 역시 다소 성기다고 하겠다. 이처럼 남북조 시대에 일식을 꼼꼼하게 기록하지 못한 것 역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때문으로 짐작된다. 왕조 교체기와 같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일식 자체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며, 일식 기록을 온전히 후대에 남기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남조에서는 일식을 제이로 여기는 관념이 적었고, 그에 따라 일식을 기록하는 일에도 다소 소홀했던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남북조 시대의 일식은 대부분 초하루(朔)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송서』 「오행지」의 17번의 일식 기록 중 일식이 그믐(晦)에 일어난 1번과 회삭을 밝히지 않은 1번의 일식 기록을 제외한 15번의 일식이 모두 초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남제서』 「천문지」의 5번의 일식은 모두 초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에 비해 『위서』 「천상지」의 초하루 일식 비율은 다소 떨어져 총 59번의 일식 중에서 초하루 일식이 50번, 그믐 일식이 6번, 회삭을 밝히지 않은 것이 3번이다. 『수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에서는 회삭을 밝히지 않은 5번을 제외한 나머지 10번

36) 『송서』 「오행지」의 기록된 위진 시대의 일식은 ‘3.23년/1번’으로 빈도가 다소 잦다.

37)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23쪽의 <표 1>을 참조.

의 일식이 모두 초하루에 일어났다. 이처럼 초하루 일식의 비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와 달의 운동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역법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³⁸⁾ 실제 남북조 시대의 남조에서는 하승천(何承天)의 원가력(元嘉曆), 조충지(祖冲之)의 대명력(大明曆)과 같이 실제 천상에 잘 부합하는 우수한 역법이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북조에서는 참위설(讖緯說)의 영향으로 남조만큼 우수한 역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이전보다는 해와 달의 운동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역법이 사용되었다.³⁹⁾ 그 결과 일식 기록이 초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 비율이 남조가 북조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2) 월식

『사기』 「천관서」 이래 월식은 일식에 비해 그 기록이 매우 적다. 이는 월식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여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⁴⁰⁾ 월식에 대한 이런 태도는 『진서』 「천문지」에도 그대로 이어져 『진서』 「천문지」에서 월식에 대한 기록은 단 1번에 불과할 뿐이다.⁴¹⁾ 하지만 남북조 시대에는 월식에 대한 기록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송서』의 월식 기록을 보면 월식이 「오행지」, 「천문지」, 「율력지」 등 세 곳에 나누어 기록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얼핏 월식을 기록하는 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오행지」의 기록은⁴²⁾ 송 이전인 진(晉)의 기록으로 『진서』 「천문지」에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 여기에서 직접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오행지」가 주로 해에 관한 현상만을 기록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예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후한서』 「오행지」에도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월식 기록이 들어

38) 이런 점은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25-26쪽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39) 남북조 시대의 역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戴內清, 『中國の天文曆法』 (平凡社, 1969), 82-90쪽을 참고.

40)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12쪽.

41)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37쪽.

42) 『송서』 「오행지」, 3965쪽, “孝懷帝永嘉五年三月丙申夜 月蝕既. 丁酉夜 又蝕既. 占曰 ‘月蝕既盡 大人憂’. 又曰 ‘其國貴人死.’”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⁴³⁾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송서』가 『후한서』의 체계를 계승하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율력지」의 월식 기록은 10번 가까이 되는데 이것들은 통상적인 천문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천문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앞서 언급했던 원가력과 대명력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천문지」의 월식 기록은 2번 있는데, 모두 효무제 대명 3년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달이 방(房)[宿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부근에 있는] 구검(鉤鈐)을 범(犯)하여서 식이 일어났다”⁴⁴⁾고 한 것으로 보아 해와 달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월식이 아니라 달이 항성을 가리는 식이었다. “달이 위(胃)[宿의 위치]에 있을 때 식이 일어났는데 모두가 려다”⁴⁵⁾고 한 기록은 일반적인 월식인지 항성을 가렸던 식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남제서』 「천문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문 현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록했고 그 유형의 하나가 바로 월식이다. 이는 『남제서』에서 비로소 월식이 기록할 만한 중요한 천문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식’ 항목에는 총 12번의 월식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 가운데 사례 8과 9의 식은 달이 각각 형혹과 필수의 왼쪽 제1성을 가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달이 항성을 가리는 식이 분명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번의 월식은 달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일반적인 월식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들 월식 기록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찬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와 달은 교대로 비추지만 실제로는 [해와 달의 궤도가] 겹쳐지기도 하면서 하늘을 운행한다. 위[즉, 하늘]에서 [해와 달이] 만나면 아래[즉, 땅]에서는 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해와 달이] 같은 궤도 [위에 있게 되면] 서로 가리는 것이다.⁴⁶⁾

43)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98쪽의 주) 156을 참고.

44) 『송서』 「천문지」, 750쪽, “大明三年 … 三月 月在房 犯鉤鈐 因蝕.”

45) 『송서』 「천문지」, 751쪽, “大明三年 … 九月 月在胃而蝕月 既.”

46) 『남제서』 「천문지」, 206쪽, “史臣曰.. 日月代照 實重天行. 上交下蝕 同度相掩.”

표 5. 『남제서』 「천문지」의 월식 기록

사례	황제	연호 연월	일	서기	달의 위치	食分	添辭
1	齊 高帝	建元 4-7	戊辰	482	危宿		
2	武帝	永明 2-4	丁巳	484	南斗宿		
3		3-11	戊寅	485	東井	1/3	
4		5-3	庚子	487	氐宿		
5		5-9	戊戌		胃宿		
6		6-9	癸巳	488	婁宿九度	11/15 既	加時在寅之少弱 虧起東北角 … 十五日子時 蝕從東北始 至子時末都既 到丑時光色還復.
7		7-8	丁亥	489	奎宿		
8		7-10	庚辰				月奄蝕熒惑.
9		8-6	庚寅	490			月奄蝕畢左股第一星.
10		10-12	丁酉	492	柳度	2/7	加時在酉之少弱 到亥時月蝕起東角七分之二 至子時光色還復.
11	東昏侯	永泰 1-4	癸亥	498			色赤如血. 三日而大司馬王敬則舉兵 衆以為敬則稜烈所感.
12		永元 1-8	己未	499	盡		色皆赤. 是夜 始安王遙光伏誅.

월식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남제서』는 월식 자체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월식에서 그것이 일어났을 때의 달의 위치를 28수를 이용하여 밝혔고, 몇몇 경우에는 월식 때 달이 이지러진 정도 즉, 식분(食分)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사례 6(또는 사례 10)에서와 같이, “[달이] 루수(婁宿) 9도[의 위치]에 있을 때 월식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 인시(寅時)가 조금 넘었을 때 [달의] 동북쪽 모퉁이 부분부터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식이 15분의 11 만큼 식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인] 15일 자시(子時)에는 식이 동북쪽을 따라 진행되었는데 자시가 끝날 무렵에는 [달이] 모두 가리게 되었다. 축시(丑時)가 되어서야 [달의] 빛과 색깔이 다시 돌아왔다”는 정도로 월식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기까지 했다. 한편, 남제가 멸망할 무렵의 월식 기록인 사례 11과 12는 월식

이 일어나서 달의 색깔이 붉게 변했다는 묘사와 함께, 전쟁이나 반란과 같은 구체적 사건과 직접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위서』 「천상지」는 아주 많은 월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를 통해 일단 『위서』가 『남제서』만큼이나 월식을 중요한 천문 현상으로 여겨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남제서』의 월식 기록은 대략 2.4년마다 1번씩(남제 24년 동안 10번) 기록된 것에 비해 『위서』의 그것은 대략 2.85년마다 1번씩(북위, 서위, 동위 165년 동안 58번) 기록되어 『위서』가 『남제서』보다 월식 기록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서』의 월식 기록이 북위가 세워진 후 80여 년이 지난 467년에 처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이후만을 따져보면 오히려 『위서』가 『남제서』보다 더 자주 월식을 기록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접 보지 않고 전해들은 월식을 기록한 경우(사례 2, 4)나 한 해에 월식을 2, 3차례씩 기록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위서』에서 얼마나 월식을 꼼꼼히 기록하고자 했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표 6. 『위서』 「천상지」의 월식 기록

사례	황제	연호 연-월	일	서기	달의 위치	食分	添辭
1	顯祖 (獻文帝)	皇興 1-10	癸巳	467	參		
2	高祖 (孝文帝)	延興 3-12	戊午	473	七星		京師不見 統萬鎮以聞.
3		承明 1-4	甲戌	476	尾		
4		太和 1-10	乙丑	477	昴		京師不見 雍州以聞. 占曰...
5		2-9	庚申	478	昴		陰雲開合
6		4-2	壬午	480			
7		6-1	辛未	482			
8		6-7	丁卯				
9		8-5	丁亥	484	在斗	盡	占曰...
10		9-11	戊寅	485			
11		11-3	庚子	487	氏		占曰...
12		11-9	戊戌		胃		
13		12-9		488		盡	

14		13-2	己丑		角	7/15	
15		13-8	丙戌	489	未[方]		天有微雲. 占曰…
16		15-1	己酉		張		
17		15-12	辛卯	491		盡	
18		16-12	丁酉	492	柳		占曰…
19		17-6	甲午	493	女		占曰…
20		18-4	庚申	494	斗		
21		20-10	丙午	496	畢		
22		22-2	丁卯	498	角		占曰…
23		23-2	壬戌		軫		
24		23-8		499	壁		蝕子已上.
25	世宗 (宣武帝)	景明 1-1	丙辰	500	翼	3/15	
26		3-11	己巳	502	井	盡	
27		4-5	丁卯	503	斗	12/15	從地下蝕出. 占曰…
28		正始 2-9	癸未	505	昴	10/15	占曰…
29		3-3	庚辰	506	氏	盡	
30		永平 2-1	甲午	509	翼	12/15	
31		3-1	戊子		張		
32		3-閏	乙酉	510	危		
33		3-12	壬午		張		
34		延昌 2-4	己亥	513	箕		從地下蝕出 還生三分 漸 漸而 滿. 占曰…
35		2-10	丙申		參	盡	占曰…
36		3-4	癸巳	514	尾	14/15	從地下蝕出. 占曰…
37	肅宗 (孝明帝)	熙平 1-8	己酉	516	奎	8/15	占曰…
38		2-2	丁未		軫		
39		2-8	癸卯	517	婁	盡	
40		神龜 2-12	庚申	519	柳	10/15	
41		正光 1-12	甲寅	520			占曰…
42		2-5	丁未				占曰…
43		2-11	己酉	521	井		
44		孝昌 1-9	丁巳	525			
45	莊帝 (孝莊帝)	永安 2-10	甲子	529	參		
46		3-5	甲申	530	午[方]		望前. 洪範傳曰…
47	前廢帝 (節閔帝)	普泰 1-5	甲申	531		盡	

48	後廢帝 (順文帝)	中興 2-4	戊寅	532	箕		
49	出帝 (孝武帝)	太昌 1-10	丙子		參		
50		永熙 3-3	戊戌	534	亢		
51	孝靜 (孝靜帝)	天平 3-2	丁亥	536			
52		3-8	癸未				
53		元象 1-6	癸卯	538			
54		興和 1-12	甲午	539			
55		3-4	壬辰	541			
56		武定 1-3	丙午	543			
57		4-1	己未	546	軫		
58		7-11	丁卯	549			

『위서』의 월식 기록은 역시 『남제서』의 그것처럼, 대부분 월식이 일어났을 때의 달의 위치를 밝혀 놓았으며, 식분⁴⁷⁾을 기록해 놓은 것도 여러 차례 있다. 하지만 월식 기록에 점사(占辭)가 붙어 있는 경우가 16번이나 되는 것은 특이한 모습이다. 『남제서』에서도 월식을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켜 받아들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남제서』에는 따로 점사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서』에서는 월식을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시켰을 때는 예외 없이 먼저 점사를 제시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식 기록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일식의 경우에는 전쟁이나 반란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는데 비해, 월식의 경우에는 그것을 가뭄이나 기근(사례 9, 10, 19, 27, 28, 34, 37, 42)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 비율이 높다. 『위서』에서는 월식도 일식처럼 재이설의 관점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한편, 『남제서』와 『위서』의 월식 기록을 보면서 중국에서 월식이 본격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한 것이 5세기 후반 무렵부터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천문 현상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인들은 5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월식을 특별히 기록할 만한 천문 현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태도가 5세기 후반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최소한 『남제서』

47) 『위서』에서 개기식이 아닌 경우 항상 식분을 표시할 때 모두 15를 분모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와 『위서』의 월식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⁴⁸⁾ 다만 다음과 같은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예컨대, 월식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월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대 중국인들이 월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월식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인가 아닌가 또는 월식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⁴⁹⁾ 앞의 물음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인들이 월식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으며, 뒤의 물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음양이론에 따라 음에 속하는 달이 양에 속하는 해를 이기지 못하여 달이 빛을 잃는다거나, 달이 해의 반대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에 들어가서 월식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⁵⁰⁾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송서』 「율력지」의 월식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역법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역법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월식이 언급되었던 경우가 여럿 있다.⁵¹⁾ 이는 역법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월식에 대한 관심을 높아졌음을 말해 준다. 또한 해와 달의 운행에 빠르고 늦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과정을 거쳐 그것들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앞서 인용했던 『남제서』 사신(史臣)의 말처럼, 월식이 해와 직접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식도 일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기록할 천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서』 「천문지」의 월식 기록은 단 2번에 불과하다. 하나는 양 무제 보통(普通) 6(525)년 3월의 것으로 단지 월식이 있었다는

48) 또한 월식을 자세히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 문제는 후대의 천문 기록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49) 中國天文學史整理研究小組 編, 『中國天文學史』 (科學出版社, 1981), 제6장에는 이런 물음을 포함하여 일식과 월식에 관한 여러 유용한 자료가 들어 있다.

50) 劉文典 撰, 『淮南鴻烈集解』 (中華書局, 1989), 525쪽, “月望 日奪其光 陰不可以乘陽也.”; 『靈憲』 (文淵閣四庫全書本) 第1397冊 278쪽, “月光生於日之所照 魄生於日之所蔽. 當日則光盈 就日則光盡也. 當日之衝 光常不合者 蔽於地也. 是謂闇虛. 在星星微 月過則食.”; 『남제서』 「천문지」, 207쪽, “說者稱 日有暗氣 天有虛道 常與日衡相對 月行在虛道中 則爲氣所奔 故月爲蝕也.”

51) 남북조 시대 역법의 발달에 관해서는 藪內清, 『中國の天文曆法』 (平凡社, 1969), 82-88쪽을 참고.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위서』에 포함되는 시기이지만 이 기록은 『위서』에는 들어 있지 않다. 다른 하나는 북제 후주(後主) 무평(武平) 3(572)년의 월식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9월 경신일에 달이 루수에 있었다. [달이 모두 가려지는] 개기식이었는데 아침이 되어도 [달빛 또는 달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았다. 점에서 “여주(女主)에게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 그해 8월에 [후주의 첫째 황후였던] 곡울황후가 폐위되고 [목황화(穆黃花)를] 목후로 세웠다. [무평] 4년에는 다시 호[황]후가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다.⁵²⁾

이처럼 월식을 최고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관시킨 것은 달에 대한 『진서』 「천문지」의 관념 즉, “달은 태음(太陰)의 정(精)으로 해와 짝을 이루어 여주(女主)의 상(象)”⁵³⁾이라는 관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남북조 시기의 유일한 사례이다. 『남제서』와 『위서』의 월식 기록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기록을 통해 달을 여성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관념이 남북조 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일식과 월식을 중심으로 남북조 시대 정사에 들어 있는 천문 기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남북조 시대의 천문 기록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⁵⁴⁾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년도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남북조 시대에서도 천문 기록의 연속성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천문 현상을 끊임없이 기록하고자 하는 관념은 사마천이 『사기』 「천

52) 『수서』 「천문지」, 603쪽, “九月庚申 月在婁 食既 至旦不復. 占曰.. 女主凶. 其三年八月 廢斛律皇后 立穆后. 四年 又廢胡后爲庶人.”

53) 『진서』 「천문지」, 318쪽, “月爲太陰之精 以之配日 女主之象.”

54) 물론 여기에서는 행성에 관한 현상을 비롯하여 천문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여러 천문 현상을 다루지는 않았고 그것은 과제로 남기겠지만, 일식과 월식만으로도 남북조 시대에 천문이 전개된 기본적인 모습을 살필 수는 있을 것이다.

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이래 그것은 『한서』와 『후한서』로 이어졌고 뒤늦게 편찬된 『진서』에서도 지켜졌다. 남북조 시대의 사서들 역시 『송서』의 천문 기록이 『후한서』의 그것을 바로 잇고 있거나 『수서』에서 천문 기록이 따로 없는 양, 진, 북제, 북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남북조 시대의 천문 담당자들은 어느 한 시기도 빠뜨리지 않고 천문 현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다음으로 특히 일식 기록에서 잘 나타나듯이, 남조와 북조의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남북조 시대의 일식은 사서에 따라 어떤 것은 기록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빠뜨리기도 했다. 그에 따라 일식이 기록된 빈도가 사서와 왕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북조에서 일식을 더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식을 재이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북조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비록 자연현상을 재이로 받아들이는 관념이 전통시대 내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남북조라는 동시대에서도 왕조에 따라 그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조 구분 없이 5세기 후반부터 월식이 중요한 천문 현상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월식은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천문 현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월식에 대한 기록이 급격하게 증가할 만큼 월식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편, 남북조 시대의 천문 기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천문이 가진 널리 알려진 특성 즉, 천문은 그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⁵⁵⁾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다른 것과 구분되는 그 나름의 전통을 가진 전문 분야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남북조 시대의 천문 담당자들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다. 오늘날의 역사학자와 천문학자의 모습을 동시에 지녀서 최고 권력자가 큰 관심을 보이는 천문에 관한 일을 맡게 된 이들은 천문 기록의 연속성을 애써 실천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천체 관측과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알아내는

55) 이들은 대개 ‘태사(太史)’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송서』 「百官志」, 1229쪽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掌三辰時日祥瑞妖災 歲終則奏新曆”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천문에 관한 일과 함께 역법에 관한 일도 담당했었다.

것과 같은 어려운 작업을 익혀서 앞선 시대에 남겨진 것과 자신들이 얻어낸 수많은 자료들을 때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때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Astronomical Records 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YI Moon Ky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cords of solar and lunar eclipses in the four books, namely, *the Book of Song* 宋書, *the Book of Southern Qi* 南齊書, *the Book of Wei* 魏書, and *the Book of Sui* 隋書 among the official Twenty-Four Histories of Imperial China. In these books, the Chinese have officially recorded the astronomical phenomena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As a result, I came to know the following facts. Firstly, astronomical records were religiously kept in both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e Chinese have tried to maintain records of astronomical phenomena without fail since Sima Qian wrote *the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史記. Secondly,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astronomical records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For example, the Northern Dynasties recorded the solar eclipses more carefully and more frequently than the Southern Dynasties did. Thirdly, the portent theory, which is a basic viewpoint in understanding natural phenomenon in ancient China, still remained strongly in the Northern Dynasties. We could see that the portent theory was applied differently in the two dynasties even during the same era. Lastly, it has become important for the Chinese to record lunar eclipses from the late 5th century. At that time lunar eclipses started to become portent phenomena.

Key words. astronomical records, solar eclipse, lunar eclipse, astronomical chapters of the official histories,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